

휘발유 가격 1737원 수준 정체

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.

한국석유공사가 5월14일 발표한 5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무연 보통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0.9원 상승한 1739.9원을 기록했다.

경유는 리터당 1.4원 오른 1526.6원, 실내등유는 2.2원 상승한 1076.6원에 거래됐다.

석유제품의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 변화

(단위: 원/ℓ)

| 구 분 | 2009년 | 2010.3 | 4월3주 | 4월4주 | 5월1주 | 5월2주 | 전주대비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휘발유 | 1,600.7 | 1,691.23 | 1,734.6 | 1,736.0 | 1,737.0 | 1,737.9 | ↑ 0.9 |
| 자동차경유 | 1,397.5 | 1,469.17 | 1,521.2 | 1,523.7 | 1,525.2 | 1,526.6 | ↑ 1.4 |
| 실내등유 | 976.2 | 1,041.74 | 1,071.0 | 1,076.9 | 1,074.4 | 1,076.6 | ↑ 2.2 |

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1800.0원으로 가장 높았고, 전남이 1724.1원으로 가장 낮았다.

상표별로는 SK에너지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1744.72원으로 가장 비쌌고, GS칼텍스 1741.34원, 현대오일뱅크 1727.80원, S-Oil 1728.96원 순으로 나타났다.

<화학저널 2010/05/17>